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한국위원회 발족식

1998. 12. 7

Russell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한국위원회 발족식

● 일시: 1998.12.7(월) 오후 5시

● 장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

사회/ 김윤옥(정대협 공동대표)

I 부

- 개회사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 경과보고 양미강(정대협 총무)
- 한국위원회 조직(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등).....
- 사업을 위한 토론

II 부

- 식사 및 친교

출 - 윤정옥, 박유진, 강사(양미강)

장 - 서울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주최 - 한국위원회

1월 16일 (土) * 1.16 (土)
1월 16일 * 1.16 (土)
2시

한국위원회 위원(1차)

· 법학자

김명기(명지대), 김창록(부산대), 지정일(한양대), 홍성필(이대), 이장희(외대), 이상면(서울대), 정인섭(서울대), 조시현(성신여대)

· 변호사

최일숙, 최봉태, 조용환, 박원순, 최영도, 안상운

· 연구자

정재정(시립대), 강창일(배재대, 한국역사연구회), 김정기(역사문제연구소),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강정숙(정신대연구소), 심영희(한양대), 김은실(이대)

· 운동단체

정대협(이효재,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신혜수, 정진성, 고해정, 김신실, 정숙자, 김혜원, 김묘주, 한국염, 이정실, 윤순녀, 양미강), 인권운동사랑방(서준식), 경남정대연(장정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김영호), 한국성폭력상담소(최영애),

· 국회의원

이미경(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2000. 12. 12. ~~평~~
 여성국제전범법정 VAWA
 Civil ag. w
 in war.
 마리아 아라곤
 리해광
 - 여성인권
 인력.

<취지: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향하여>

1.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이란 무엇인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로 얼룩진 폭력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21세기를 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노예문제이다.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각국의 '위안부'들이 증언하고,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 내전 시 여성들에 대한 집단강간 사실이 표면화되면서 무력갈등 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쟁범죄이며 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등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아시아 피해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권고를 무시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국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유산인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안부'제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책임자인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에 의한 여성에 대한 국가범죄였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여성들에 의한 '위안부' 전범자를 처벌하는 법정을 열기로 한 것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 세계인권의 날과 태평양전쟁 시작의 날인 12월 8일을 전후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들과 개인, 그리고 국제법과 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법정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부의 전쟁책임을 고발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21세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2.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왜 필요한가? '위안부'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도쿄재판, 다시 열자

1997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내전 시 성폭력 등 전시, 무력갈등 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전세계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의 최대 초점은 이제까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가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의 전범법정은 여성들에 의해 비록 불충분하긴 하지만 성폭력도 전쟁범죄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었다. 현재 유엔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여 항시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전쟁범죄 처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위안부' 관련범죄는 여전히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불충분한 것이 책임자처벌문제이다. 1993년 한국에서 책임자처벌을 제기한 이래, 각국의 피해자들은 '책임자의 처벌없이 빼앗긴 명예의 회복은 없다'고 계속 호소해왔으며 따라서 누가 책임자였는가를 밝히는 진상규명활동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 되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 저지른 전쟁범죄는 도쿄재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쿄재판에서 '위안부' 관련 전범자들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위안부' 전범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도쿄재판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각국에서 이루어진 전범재판을 재검토하고, 여성들

98. 12. 10. - 13.
 글씨위임권.
 Dalgopad (한국)
 ICS, PCA (한국)
 부응관).

의 힘으로 '위안부' 관련 전범자들을 처벌하는 법정을 열고자 한다.

3.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시아 피해각국의 여성들이 힘을 합치자

1998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네트워크(Violence Against Women in War-NETwork)' 모임에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한 제의가 있었다. VAWW-NET은 지난 1997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에서 결성된 것으로, 전쟁이나 무력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여성네트워크이다.

1998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이 제안이 승인되어 아시아 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법정을 제안한 VAWW-Net Japan은 1998년 6월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상규명활동으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처벌의 선례를 만들자

법률가, 연구자,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2000년 12월 '위안부' 관련 전범자들을 처벌하는 법정을 개최한다. 이 법정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 것이며, 전 세계의 여성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국이 함께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일본정부 및 각 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구 일본군 등의 자료를 수집, 공개한다. ② 구 일본군인의 증언이나 수기, 또는 피해각국의 징병자, 학도병 등의 증언이나 수기 등을 수집한다. ③ 피해자들의 증언을 구 일본군인의 위안소 관여라는 측면에서 재수집한다. ④ 도쿄재판 등 아시아 각지에서 있었던 군사재판에 제출된 성폭력 관계자료를 재검토한다. 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전범법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련자료를 수집한다. ⑥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국내법 등을 조사, 연구한다. ⑦ 해외현지 조사를 통해 위안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경과보고>

- 1998.4.9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여성단체모임에서 일본의 마쓰이 야요리가 제안하다.
- 1998.4.15-17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열기로 결정하다.
- 1998.4.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내부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하다(윤정옥 공동대표, 김윤옥 공동대표, 지은희 기획위원장,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강정숙 정신대연구소연구원, 이미경 국회의원, 양미강 총무)

1998.5.20 준비위원회 1차모임

1차모임

- 1) 각 국가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국가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모임을 갖는다.
- 2) 전세계의 저명한 법률가,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형성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식을 취한다.
- 3) 가해국인 동경에서 개최하여 일본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전세계에 규탄하고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4) 문서조사, 피해자 증언 제청취 및 정리, 학도병 및 징병자 증언, 해외현지조사, 전범자 명단 작성을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법이나 전범재판 사례 연구, 진상규명작업을 한다.
- 5) 향후 방향으로 (1) 일본내 전범재판이나 특별법 제정운동을 다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아시아연대회의 과제를 점검하여 행동프로그램을 정해야 한다. (3) 책임자처벌에 대한 홍보전을 계속해야 한다. (4)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아시아여성인권기구 설치를 목표로 한다.

1998.6.6-7 일본에서 열린 바우넷제팬(VAWW-Net Japan)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윤정옥 공동대표가 기조발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다(윤정옥 공동대표, 지은희 기획위원장 참석)

1998.7.30-31 일본에서 열린 강제연행세미나에 참석한 후 바우넷 제팬(VAWW-Net Japan) 관계자들과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한 의견교환과 한국측 운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다(정진성 진상규명위원장, 지은희 기획위원장 참석)

1998..11.6 준비위원회 2차모임(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강정숙, 양미강)

- 1) 1998.6월 바우넷제팬(VAWW-Net Japan) 회의 보고(일본측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동경재판 중 B.C급 전범재판을 제검통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미국무성 자료를 검토중에 있다. 또한 베트남전에 대한 민간재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마쓰이 야요리는 게 이 맥두갈과 반 보벤을 만나 2000년 여성국제전범재판에 참가를 확정지었다. 1998년 6월 6일 회의에서 한국측이 전체 준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각국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를 하다.
- 2) 한국 준비위원회 조직 및 구성을 위해 운동단체와 연구단체, 법률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다. 운동단체는 정대협과 인권단체, 연구단체는 재미사학자 방선주 선생과 정신대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한일역사연구회 등으로 구성하며, 법률가는 국제법과 일본법

을 연구한 교수나 인권변호사, 검사 등으로 구성키로 하다.

3) 한국 준비위원회 활동을 (1) 전범자 명단 등의 자료는 일본측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중첩된 활동을 벌이기 보다는 한국과 중국, 북한에 사는 피해자들의 조사를 확대하여 '위안부'제도의 명령계통을 조사하기로 하다. (2) 10월 베이징에서 있는 남북일 3자회담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북한과 협력하여 중국과 남북한의 피해자의 증언을 재청취 하여 군대이름이나 군인이름 등을 조사하고,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학도병이나 징병자의 증언과 문서를 수집하기로 하다. 또한 해외현지조사사업을 통해 해외의 위안소 등을 답사하기로 하다. (3) 북한과의 공동진상조사 및 회의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의 종태위와 직접 서신이나 팩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접촉신고를 내기로 하다. (4) 가능한 한 매월 발표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을 연구하기로 하다. 예를 들면 BC급 전범재판에 관한 연구, 배상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이를 전공한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듣기로 하다. (5)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자들에게 위탁연구를 요청키로 하다.

4)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11월 말에 한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다.

1998.11.20 준비위원회 3차모임(윤정옥, 김윤옥, 강정숙, 양미강)

1) 1998년 12월 10일 일본에서 열리는 바우넷 제팬(VAWW-Net Japan) 국제회의에 정대협에서 윤정옥 공동대표, 정진성 진상규명위원장, 양미강 총무, 정신대연구소에서 강정숙 선생, 부산대의 김창록 교수가 참석키로 하다.

2) 한국위원회 발족식을 12월 7일에 하기로 하고 한국위원회 조직 및 각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다.

1998.11.30 준비위원회는 정대협 실행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위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기로 하다.